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 전화 : 86-10-6505-2672
 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,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(10/15~11/4) 개최

- 제134회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(광저우교역회, 广交会)가 10월 15일 개막하여 11월 4일까지 개최될 예정임. 전시회 면적은 155만㎡로 전회보다 5만㎡ 증가했고 부스는 7만 4,000개로 전회보다 4,600개 증가했고 참가업체는 2만 8,000개사로 3,000개사가 증가함
- 바이어 사전 등록 상황을 보면 유럽·미국, 일대일로 주변국, RCEP 회원국 바이어가 각각 8.6%, 11.2%, 13.8% 증가했으며 주로 전자·가전제품, 기계제품, 일용소비재를 주목
- 한편 공업 자동화 및 스마트 제조, 신에너지차 및 스마트 모빌리티, 영유아용품, 신에너지, 반려동물용품 등 5개 전시구역에 최초로 브랜드 부스를 설치함. 전기기계제품 기업수가 전회대비 대폭 증가했고, 전자·가전제품 업체는 120% 이상, 조명·전기, 차량·이륜차, 금속공구 기업은 모두 50% 이상 증가함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, 광명일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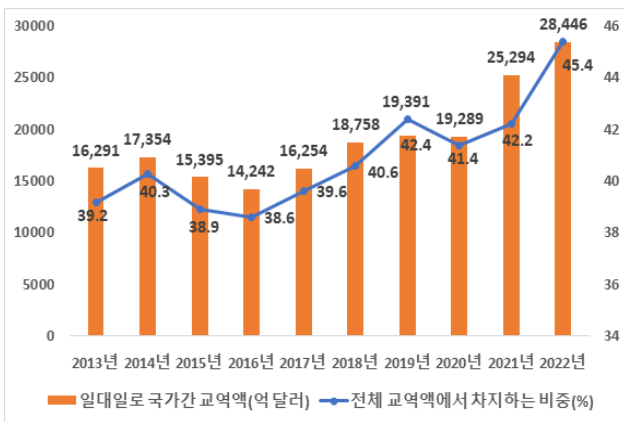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hwb/html/2023-10/16/content_26021699.htm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79811598414319809&wfr=spider&for=pc>

2 中,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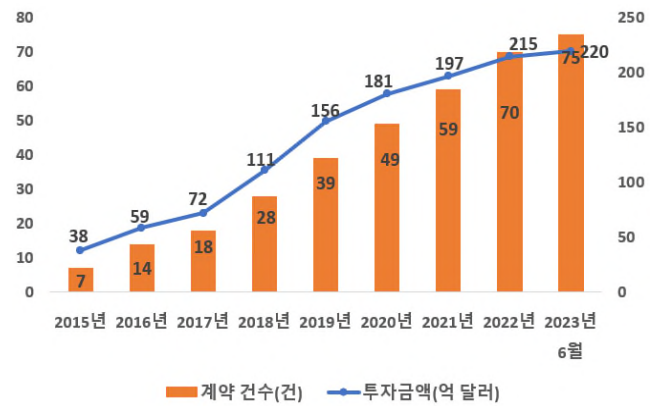
- ‘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’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, 올해는 일대일로 건설 10주년으로 140개 국가와 30개 국제조직을 포함한 국내외 4,000여명의 대표가 포럼에 참석함(*1회는 2017년, 2회는 2019년 개최)
- 한편 포럼 공식사이트(www.beltandroadforum.org)가 10월 11일 오픈했고, 개막식 외 3건의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, 상호 소통, 녹색 성장, 디지털 경제 등을 주제로, 무역 원활, 민심 상통, 싱크탱크 교류, 청렴 실�크로드, 지방 협력, 해양산업 협력 등을 의제로 6건의 전문 포럼을 개최할 예정
- 중국인민대학교 충양(重陽)금융연구원 왕원(王文) 원장은 일대일로 포럼 개최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건설 성공 및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

- 전문가들은 첫 10년간 일대일로 건설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일대일로 건설은 혁신과 활력이 넘치고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중국과 세계 각국에 새로운 기회·번영·행복의 창구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함
- 2023~2022년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 수출입은 총 19조 달러로 연평균 6.4% 증가했고 상호 투자액은 3,800억 달러이며, 이 중 중국의 일대일로 주변국에 대한 투자가 2,400억 달러에 달했음. 2022년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간 교역액은 2.9조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45.4%를 차지했으며 2013년 대비 6.2%p 상승함

〈2013~2022년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간 교역액 추이〉



〈2015~2023년 6월 일대일로 실크로드 기금 누적 프로젝트 계약 건수 및 투자액〉



자료원 : CCTV뉴스

www.beltandroadforum.org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79880602385221635&wfr=spider&for=pc>

3 中, 9월 전기사용량 전년 동기대비 9.9% 증가

■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9월 전기사용량은 전년 동기대비 9.9% 증가한 7,811억 kWh이며, 1차 산업은 8.6% 증가한 117억 kWh, 2차 산업은 8.7% 증가한 5,192억 kWh, 3차 산업은 16.9% 증가한 1,467억 kWh, 도시와 농촌의 생활용 전기사용량은 1,035억 kWh로 집계됨

- 1~9월 누적 전기사용량은 5.6% 증가한 6만 8,637억 kWh이며, 1차 산업은 11.3% 증가한 976억 kWh, 2차 산업은 5.5% 증가한 4조 4,703억 kWh, 3차 산업은 10.1% 증가한 1조 2,546억 kWh, 도시와 농촌의 생활용 전기사용량은 1조 412억 kWh임

자료원 : 중국 국가에너지국

http://www.ce.cn/xwzx/gnsz/gdxw/202310/16/t20231016_38751049.shtml

4 中, 자동차 보유량 4억 대...신에너지차 보유량 1,821만 대

-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2023년 1~9월 신규 등록 자동차(오토바이, 트럭 포함 모든 형태의 자동차)는 2,601만 대, 9월 기준 자동차 보유량은 4.3억 대로 나타남
 - 1~9월 신규 등록한 승용차는 전년 동기대비 4.4% 증가한 1,817만 대이고, 이 중 신에너지차는 40% 증가한 520만 대임. 9월 기준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1,821만 대로 전체의 5.5%를 차지
 - 90개 도시의 승용차 보유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, 25개 도시는 300만 대 이상으로 청두, 베이징, 충칭은 600만 대 이상, 상하이, 쑤저우는 500만 대 이상에 달함
-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1~9월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7.3%, 8.2% 증가한 2,108만 대, 2,107만 대이며,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3.7%, 37.5% 증가한 631만 대, 628만 대임
 - 9월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전월 대비 10.7%, 10.7% 증가, 전년 동기대비 6.6%, 9.5% 증가한 285만 대, 286만 대임
 - 중국자동차산업협회 천스화(陈士华) 비서장은 일련의 소비촉진 정책과 지방 정부의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가을철 신차 집중 출시로 자동차 산업은 3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고 분석함

자료원 : 중국공안부, 인민일보 해외판

<https://www.mps.gov.cn/n2254098/n4904352/c9244719/content.html>
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3-10/12/content_26021170.htm

5 화웨이, 2024년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치 22년의 2배로 상향 조정

- 화웨이 관계자에 따르면 화웨이는 메이트 60 시리즈의 흥행에 힘입어 2024년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치를 6,000~7,000만 대(2022년 출하량의 2배)로 상향 조정함
 - 화웨이 메이트60 시리즈는 8월 29일 출시된 화웨이의 프리미엄 기종이며, 시장 조사업체 BCI에 따르면 화웨이는 메이트 60의 흥행으로 시장점유율이 18.1%(출시전 12.7%)로 상승하여 9월 중국 스마트폰 1위를 달성
 - 시장조사업체 다웨이(达睿)컨설팅에 따르면 현재 메이트60 시리즈는 재고 부족을 겪을 정도로 판매 호조로 일부 유통 플랫폼에서는 공식 판매가보다 10~60% 높은 가격에 판매

- 화웨이 신기종의 인기는 대다수 공급업체의 예상을 뛰어넘었으며,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는 최근 출하량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극소수의 업체로 2024년 화웨이의 스마트폰 부품 주문량을 3,000~4,000만 대로 예상함

자료원 : 증권일보망, 지통재경

<http://www.zqrb.cn/gscy/qiyexinxi/2023-10-13/A1697128609965.html>

<https://www.zhitongcaijing.com/content/detail/1005535.html>

6 中, 1~8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63.1%...CATL 1위

- 에너지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~8월 세계 각국의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전년 동기대비 48.9% 증가한 429GWh이며, 이 중 중국 업체 점유율이 63.1%로 집계됨
- 1~8월 CATL(宁德时代)의 배터리 탑재량은 전년 동기대비 54.4% 증가한 158.3GWh으로 36.9%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글로벌 1위를 유지, 이 외 BYD(比亚迪), CALB(中航锂电), EVE(亿纬锂能), Guoxuan(国轩高科), Sunwoda(欣旺达) 등 총 6개의 중국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0위권에 진입
- CATL은 올해 유럽·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대폭 증가했고, BYD는 탑재용 배터리 자체 생산부터 전기차 제조까지 수직적 통합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
-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(점유율 14.2%, 3위)·SK온(5.1%, 5위)·삼성SDI(4.1%, 7위) 3사가 10위권에 진입했으며,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3.4%로 전년 동기대비 0.1%p 하락함

<2023년 1~8월 전기차 배터리업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>

단위: GWh

| 순위 | 제조사명 | 2022.1~8 탑재량 | 2023.1~8 탑재량 | 성장률(%) | 2022 시장점유율(%) | 2023 시장점유율(%)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| CATL | 102.5 | 158.3 | 54.4 | 35.6 | 36.9 |
| 2 | BYD | 36.4 | 68.1 | 87.1 | 12.6 | 15.9 |
| 3 | LG에너지솔루션 | 38.4 | 60.9 | 58.5 | 13.3 | 14.2 |
| 4 | Panasonic | 22.3 | 30.6 | 37.3 | 7.7 | 7.1 |
| 5 | SK온 | 18.6 | 21.7 | 16.5 | 6.5 | 5.1 |
| 6 | CALB | 11.9 | 20.0 | 69.0 | 4.1 | 4.7 |
| 7 | 삼성SDI | 13.3 | 17.6 | 32.4 | 4.6 | 4.1 |
| 8 | EVE | 3.8 | 9.2 | 142.8 | 1.3 | 2.1 |
| 9 | Guoxuan | 8.4 | 9.1 | 7.7 | 2.9 | 2.1 |
| 10 | Sunwoda | 4.7 | 6.2 | 30.4 | 1.6 | 1.4 |
| | 기타 | 27.8 | 27.3 | -1.6 | 9.6 | 6.4 |
| | 합계 | 288.1 | 429.0 | 48.9 | 100.0 | 100.0 |

자료원 : 평파이망

https://www.thepaper.cn/newsDetail_forward_24895268

7 中 유제품 기업, 국가위생위 비준에 모유 올리고당(HMO)함유제품 출시

-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모유 올리고당(HMO) 원료인 2'-후코실락토스(2'FL)와 락토-N-뉴테트라오스(LNNT) 2종을 분유에 사용하도록 비준하였으며, 10월 13일 분유업체 쥘러바오(君乐宝)가 모유 올리고당을 함유한 분유를 출시
 - * 모유올리고당(HMO human milk oligosaccharide)은 모유에 함유되어 있는 올리고당으로 모유에서 유당, 지방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성분으로 면역 조절, 두뇌 발달, 장내 미생물 조절에 도움을 줌
- 최근 와이어스 등 해외 브랜드도 국경간 전자상거래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추세를 보였고, 쥘러바오 외 이리(伊利), 페이허(飞鹤) 등 업체도 모유 올리고당 함유 분유를 출시하였음
- 올해 상반기 중국내 영유아용 조제 소젖분유와 산양분유 판매액이 각각 14%, 14.7% 감소한 가운데 HMO 원료를 분유에 사용하도록 비준하여 분유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HMO 원료는 영유아용 조제분유 뿐만 아니라 노인용 영양제품에도 사용될 전망

자료원 : 증권일보망

<http://www.zqrb.cn/stock/redian/2023-10-11/A1696986167057.html>

8 中 임플란트 가격, 의료보장국 정책실시 후 반값 인하

-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의료보장국에서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집중구매 정책을 실시한 후 임플란트 가격이 평균 1.5만 위안(한화 약 277만 원)에서 6,000~7,000위안(약 11~129만 원)으로 인하됨
- 의료보장국은 지난해 '구강 임플란트 의료서비스 비용 및 소모품 가격 특별관리' 사업을 개시했으며 임플란트 소모품과 서비스 비용을 규범화하였음

[참고] 2022.09.19. 차이나 마켓워치 No.138 “中, 임플란트 가격 제한 정책으로 수요 증가 예상”

- 중국 의료보장국은 2022년 9월 8일자로 '치과 임플란트 의료서비스 비용 및 소모재 가격 정비에 관한 통지'를 발표하여 임플란트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
- 3급 공립병원은 임플란트 서비스 가격이 4,500위안(약 90만 원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3급 이하 공립 병원은 이에 상응하여 하향 조정하며, 특정 요구에 부합되는 지역 및 의료기관도 기준가격의 20%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

- 올해 1월 쓰촨성에서 임플란트 집중구매 사업을 전개하고 다른 성(省)에서도 적극 참여했으며 수요가 287만 개로 전국의 연간 임플란트 수요량(400만 개)의 72%에 달했음. 평균 구매가격이 900위안(약 16.7만 원)으로 집중구매 전 가격대비 하락폭이 55%에 달함

자료원 : 공인일보

http://www.ce.cn/xwzx/gnsz/gdxw/202310/16/t20231016_38750324.shtml